

읽기 및 쓰기 학습 부진 아동을 위한 학습치료 프로그램 효과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Effect of Reading and Writing Abilities Improvement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최은실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Eun-Sil Choi(ces726@catholic.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읽기 및 쓰기 학습 부진을 가진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검사(KISE-BAAT)를 실시하여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을 가진 다문화 아동을 선별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읽기 및 쓰기 학습 부진 아동 17명 중, 부모와 아동의 동의를 얻어 9명은 학습치료 프로그램 집단에 8명은 통제 집단에 배정하였다. 학습치료 프로그램은 상향식 접근을 근간으로 하고 직접 교수법을 사용하여 학습치료를 실시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주 1회 총 16 회기(4개월)로 구성되었다. 읽기 쓰기 능력에 대한 효과 비교에서 학습치료 프로그램 집단은 사후 평가에서 읽기와 쓰기 능력에서 향상이 있었으며, 통제 집단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 다문화 아동 | 학습부진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testify the effect of reading and writing abilities improvement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Methods: The research design used in this study wa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research design.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n experimental group(n=9) and a control group(n=8). Data were analysed by using Mann-Whinety U test, Wilcoxon Signed Ranks, Cohen's d with SPSS(PASW)18.0 program. Resul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scores for reading ability ($z=-2.668$, $p=.008$, $ES(d)=0.6$) and writing ability ($z=-2.670$, $p=.008$, $ES(d)=0.5$) in experimental group.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reading and writing abilities improvement program should be used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o help them and to improve their reading and writing abilities.

■ keyword : | Reading and Writing Improvement Program | Multicultural Children | Underachievement |

I. 서론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높아

지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2년 통계청의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체 혼인(327,073건)에서 다문화 혼인의 비율

* 본 연구는 2014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접수일자 : 2014년 07월 09일

수정일자 : 2014년 08월 23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8월 23일

교신저자 : 최은실, e-mail : ces726@catholic.ac.kr

이 8.9%(29,224건)로 집계되고 있으며, 출생 비율은 전체 출생(484,550건)의 4.7%(22,908명)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1990년대 0.2%에 불과했던 다문화 혼인 비율과 비교해 본다면 매우 급격한 증가를 의미한다[1].

다문화 가정의 80%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로 구성되어 있어, 자녀 양육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점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어머니의 서툰 한국어 능력으로 인해 다문화 자녀는 영유아기부터 적절한 한국어 자극을 제공받지 못하여 제한된 언어능력을 가지게 되고 결국 학령기에 이르러 여러 학업적/정서적/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실제로 다문화 가정 유아의 언어능력이 일반 가정 유아에 비해 지체되고[2], 어휘력이 부족하며, 읽기 유창성과 쓰기 능력이 떨어지고 발표하기와 같은 표현 능력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5]. 특히 저학년의 경우 국어 교과목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교사의 의견 역시 국어 교과목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가장 취약하다고 보고하고 있다[6]. 여성 가족부의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서 다문화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 양육 상 가장 어려운 점으로 학원비 마련, 학습지도(예습 및 복습), 숙제 지도하기, 학교생활 및 학습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기초교과지도, 한글 교육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7].

특히 한글 읽기와 쓰기는 기초교과이고 정보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기본 수단이며 교육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한글 읽기와 쓰기는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며, 학업수행과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 초등학생의 경우, 10~15%학생이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학생들의 학업 실패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읽기/쓰기 능력을 적절히 발달시키지 못한다면 국어 뿐 아니라 다른 교과목에서도 심각한 학습지체 또는 학습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8].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읽기/쓰기 능력이 부족한 아동과 유능한 아동의 격차는 현격히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9], 한글 읽기/쓰기 능력의 부족은 단순히 언어능력이나 학습부진의 문제를 넘어서 다양한 정서문제와 사회

부적응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10]. 즉, 다문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학업 성취를 위한 한글 읽기/쓰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 아동의 한글 학습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수준에 맞는 적절한 학습 치료적 지원은 아동의 인지 기능의 향상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의 건강한 적응을 도모하고자 한글 읽기/쓰기 능력을 향상 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읽기/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읽기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가설2. 읽기/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쓰기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다문화 아동은 일반 아동과 마찬가지로 정규 교육을 받고 있으며 방과 후 학습이나 학원 교육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아동은 한글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지원-공부방, 독서 취미교실, 독서지도, 독서무료 대여, 멘토링 프로그램-을 받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의 수적 증가만으로는 아동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다문화 아동은 여전히 국어 교과목을 가장 힘들어하고 읽기/쓰기 능력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한글 읽기/쓰기 교육은 일반적 지원을 넘어서는 학습 치료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일반적 지원이란 공부방, 독서지도, 학원 교육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으로 아동의 현재 나이와 학년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어 교육을 보충, 보강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학습 치료적 접근이란 아동의 현재 한글 읽기/쓰기 능력의 정확한 평가를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

분에 대한 집중적 치료 개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한글 읽기/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치료적 접근 방법은 2가지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하고 있다. 하나는 음운중심의 상향식 방법으로 음운 중심으로 낱자와 소리를 가르치는 방식이며 음소-글자의 대응원리를 기초로 한다. 효율적인 읽기/쓰기를 위해서 음소와 글자의 대응 원리를 익혀 정확히 읽고 쓰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다. 음운 중심의 상향식 교육 방법은 글자의 변별 훈련과 음운 법칙에 대한 훈련이 주요 내용이 된다. 둘째는 하향식 교육방법으로 글자의 의미를 강조하는 방법이다. 통글자 방식으로 대표되는 하향식 방법은 상황과 맥락에 의존하여 글자의 의미를 익히는 방식이다 [12].

한글 읽기/쓰기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상향식 방식인 해독(decoding)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해독(decoding)이란 시각적인 글자를 말소리로 바꾸는 기술을 의미하며 효율적인 문자 해독 능력은 이후 글자 이해의 기초가 된다. 한글은 글자와 음소와의 대응이 매우 규칙적이며 초성과 증성을 같은 자음자로 활용하고 글자의 형태가 같으면 초성이나 중성 어디에 위치하든 항상 같은 소리만을 내기 때문에 음소와 글자의 대응원리를 적용하기 매우 용이하다[13]. 또한 한글은 표음주의 원칙에 따르며 음소와 글자의 상응 관계만을 잘 익히면 쉽게 문자언어를 화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언어로 소리와 글자의 대응 규칙을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발음중심 읽기 교육이 적합하다[14]. 해독이 능숙한 사람은 초기 부호화 과정이 자동화되어 읽기 이해에 남은 주의를 할당할 수 있게 되어 읽기 능력이 더욱 발달하게 된다[15]. 다음은 하향식 방식인 이해(comprehension) 기술로 문단속에 표현된 생각이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어휘력과 독해를 위한 초인지(meta-cognition)가 포함된다[16].

다문화 아동을 위한 한글 학습치료 프로그램에는 해독과 이해의 통합적 접근 방법으로 기초단계인 해독을 익힌 후 이해를 통한 음운인식, 읽기 유창성, 읽기 이해력 향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어 해독이 일차 목표이지만 글자 하나하나를 익히고 받아쓰는 단어중심 교육을 넘어서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연결시키는 교육이 읽

기/쓰기에 더욱 효과적이고 의미 있다[17].

우리나라의 다문화 아동을 위한 한글 교육적 접근 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먼저, 다문화 대안학교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아동을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이 있다. 다문화 대안학교의 한국어 교육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으로서의 한국어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 목적으로의 언어 능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음으로는 다문화 아동을 위한 한글 교육 방안에 대한 학습 모형 제시 방안으로, 이수진[18], 전형길, 김승연, 노정은[19]이 연구 모형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중재 연구가 실시되지 않아 그 효과성에 대한 입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공교육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 아동 지원책으로서의 방과 후 교실 운영과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 프로그램이 있다. 방과 후 교실 운영은 전반적인 보육 및 교육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다문화 아동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아동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음은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 프로그램으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다문화 아동을 위한 치료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KSL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이기 보다는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기초 의사소통 능력 함양에 목표를 두고 진행되어, 의사소통의 어려움 보다는 학습 상황에서 어려움이 큰 다문화 아동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20].

본 연구는 한글 읽기/쓰기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적/정서적/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읽기/쓰기 능력 향상시킴으로써 그들의 건 강한 성장을 돕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글 읽기/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의 읽기와 쓰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

군 전후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이다. 실험군에는 다문화 아동을 위한 읽기/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대조군에는 어떠한 처지도 실시하지 않았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다문화 아동을 위한 인지 능력 및 읽기/쓰기 학습 능력 평가>라는 가정통신문을 S광역시에 위치한 5 개의 초등학교의 다문화 가정에 보내고, 희망하는 아동을 학교상담사 및 교사를 통해 모집하였다. 총 25명의 아동이 신청하였으며, 이들에게 한국 웨슬러 지능검사와 기초학력검사를 실시하였다. 지능이 70이상이면서 읽기와 쓰기 기초학력에 평균 하 이하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다문화 아동을 위한 읽기/쓰기 능력 학습치료 프로그램>라는 가정통신문을 다시 발행하여 신청을 받았다. 총 9명의 아동이 신청하였으며 이들은 다음의 세 가지 기준에 충족되는 아동이었다. 첫째,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로 구성된 다문화 가정의 아동, 둘째, 한국 웨슬러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지능이 70이상인 아동, 셋째, 기초학력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기초학습능력 검사에서 읽기/쓰기 중 한 영역 이상에서 평균 하 이하)이다. 대조군 모집을 위해 4개월 이후 사전 검사 아동에 한해 재평가 참가 희망자를 모집하였으며 총 8명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본 연구 시작 전에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 학교 상담사에게 연구목적 및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프로그램 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과 프로그램 효과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방과 후 활동으로 진행되어 수업에 지장이 없으며, 익명성이 보장되고,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동의하는 참가자들에게 직접 서면동의를 받았으며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을 살펴보자면, 실험군은 9명 중 남학생이 7명, 여학생이 2명이며, 학년분포는 1학년 2명, 2학년 1명, 3학년 2명, 4학년 2

명, 5학년 1명, 6학년 1명 이었다. 대조군 8명 중 남학생이 4명, 여학생이 4명이며, 학년분포는 1학년 3명, 2학년 1명, 3학년 2명, 4학년 2명 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지능 지수가 평균하 ~ 평균상에 해당하였다. 어머니의 모국과 KISE-BAAT 읽기/쓰기 능력 점수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실험군(n=9)과 대조군(n=8)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실험군 아동	성별	학년	어머니 모국	KISE-BAAT 읽기/쓰기 능력
A	남	1	중국	61/42
B	남	2	중국	62/46
C	남	3	필리핀	85/60
D	남	6	중국	79/60
E	여	3	중국	74/53
F	여	5	일본	76/53
G	남	4	중국	94/60
H	남	4	중국	70/47
I	남	1	중국	55/31
대조군 아동	성별	학년	어머니 모국	KISE-BAAT 읽기/쓰기 능력
J	여	2	중국	54/40
K	여	3	중국	77/38
L	남	1	중국	81/43
M	여	3	중국	94/71
N	남	1	중국	75/49
O	남	4	중국	66/42
P	남	4	필리핀	67/30
Q	여	1	중국	56/46

3. 측정도구

3.1 한국 웨슬러 지능검사

한국 웨슬러 지능검사는 광금주, 박혜원, 김청택[21]에 의해 한국에서 표준화한 검사이다. 언어성 지능(VIQ), 동작성 지능(PIQ), 전체 지능(FSIQ) 지수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내적 일치도는 .92, .68, .84로 나타나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각각 .87, .84, .86으로 나타났다.

3.2 기초학력검사 읽기/쓰기 영역

기초학력검사(KISE-BAAT : Korea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Basic Academic Achievement Tests)는 개인용 기초학력검사로 읽기, 쓰기, 수학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교수활동의 효과 판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개

발되었다[22]. 7차 교육과정의 내용을 토대로 범교과적으로 통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5-14세 아동의 기초학력을 측정할 수 있다. 읽기, 쓰기, 수학의 3개 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형과 나형 2종의 동형 검사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 프로그램의 사전, 사후효과, 일반화 및 전이 효과 측정에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는 가형을 그리고 사후에는 나형의 검사를 사용하여 반복검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의 위험성을 배제하였다. 내적 합치도는 읽기가 .92~93, 쓰기가 .91~94로 나타났다.

4. 연구진행

4.1 읽기/쓰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구성 및 진행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은 박현정[23]의 읽기학습부진 위험군 아동의 조기개입 프로그램과 송은희[24]의 음운중심 쓰기 프로그램을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한글 읽기/쓰기 능력 향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박현정[23]의 프로그램은 한글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초기에는 상향식 방법을 강조하고 후기에는 하향식 방법을 강조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송은희[24]의 음운중심 쓰기 프로그램은 통글자 쓰기 프로그램에 비교하여 쓰기 기초수행능력과 고등수행능력이 모두 더 큰 향상을 보였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음운중심 쓰기 프로그램을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프로그램을 1-4회기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동기 유발, 기본 자음과 모음을 익히기, 5-8회기는 자모음 지식을 바탕으로 합성원리에 따라 한글의 6형식에 해당하는 글자를 모두 익히기, 9-12회기는 아동의 개별 능력에 따라 받침 글자, 음소의 합성, 분절, 변별 익히기, 문장 빨리 정확하게 읽기와 쓰기, 13-16회기에는 음운변동 규칙, 다양한 읽기 매체를 통한 읽기/쓰기 훈련과 이해력 증진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회기별 구체적인 목표와 내용을 심리학과 교수 1인, 학습치료 전문가 1인, 초등학교 교사 1인에게 제시하여 프로그램의 내용타당도를 확인 후 수정·보완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1회기는 프로그램의 안내와 참여 동기 유발, 행동계약 맺기, 자음 14개와 모음 10개 명칭 익히기,

2회기는 자음과 모음의 발음법 알기와 형태 익히기, 3회기는 음절과 글자의 대응 관계 알기와 단어를 구성하는 글자를 각각의 음절로 나누기, 4회기는 개개 글자를 합하여 어떤 단어가 완성되는지 알아보기와 음절 변별 활동, 5회기는 기본 24개 자모의 합성 원리 이해하기, 6회기는 겹자음과 이중모음 이해하기와 받침 없는 글자 읽기/쓰기, 7회기는 발음의 항상성 이해하기와 음소 변별하기, 8회기는 음소 분리와 합성하기, 자소와 음소의 대응 변환 규칙 이해하기, 9회기는 받침 있는 글자와 단어 읽기/쓰기, 10회기는 이중받침과 끝소리 법칙 이해하기, 11회기는 연음법칙 이해하기와 문장 빨리 정확하게 읽기/쓰기, 12회기는 문장 빨리 정확하게 읽기/쓰기, 13회기는 음운변동 규칙에 따라 읽기/쓰기와 텍스트 읽고 내용 파악하기, 14회기는 의미 단어로 끊어 읽기와 텍스트 읽고 내용 파악하기, 15, 16회기는 어휘력 확장과 텍스트 읽고 내용 파악하기로 구성하였다[표 2].

본 연구는 아동들을 방과 후에 부모가 귀가할 때 까지 돌봐주는 학교 방과 후 교실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진행은 참여를 희망하는 다문화 아동 중, 읽기 및 쓰기 능력에 어려움을 가진 9명을 선별하여 개별로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자와 학습치료사 2인이 각 1인당 3명의 아동을 학습치료 하였다. 모든 치료사는 개별 및 집단치료의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었으며, 프로그램 시작 전에 프로그램 활동지와 교안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해 숙지하였다. 매 회기가 끝날 때마다 진행 방법과 아동들의 반응에 대해 평가 회의를 가졌다.

프로그램은 매 회기 마다 활동지와 활동매체를 가지고 진행하였으며, 아동들이 한글 읽기/쓰기에 대한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게임, 미술활동, 문학적 접근 등의 매체를 활용하였다. 각 회기별 프로그램은 도입단계, 전개단계, 정리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입단계에서는 다양한 이완활동과 지난 시간의 내용을 회상하도록 하고, 전개단계에는 각 회기별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진행한다. 정리단계에서는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과제를 내어 준다. 실제 프로그램에 대한 예시는 [표 3]에 제시되었다.

표 2. 다문화 아동들을 위한 학습치료 프로그램의 개요

	회기	내용
자음 모음 익히기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래밍 안내와 참여 동기 유발 행동계약 맺기 자음 14개와 모음 10개 명칭 알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음과 모음의 발음법 알기 자음과 모음의 형태 익히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절과 글자의 대응 관계 알기 단어를 구성하는 글자를 각각의 음절로 나누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개 글자를 합하게 어떤 단어가 완성되는지 알아보기 음절 변별 활동
합성 원리 익히기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24개 자모의 합성 원리 이해하기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겹자음과 이중모음 이해하기 받침 없는 글자 읽기와 쓰기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음의 항상성 이해하기 음소 변별하기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소 분리, 합성하기 자소와 음소의 대응 변환 규칙 이해하기
문장 빨리 정확히 읽기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받침 있는 글자, 단어 읽기와 쓰기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중받침과 끝소리 법칙 이해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음법칙 이해 문장 빨리 정확하게 읽기와 쓰기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장 빨리 정확하게 읽기와 쓰기
읽고 내용 파악하기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운변동 규칙에 따라 읽기와 쓰기 텍스트 읽고 내용 파악하기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미 단어로 끊어 읽기 텍스트 읽고 내용 파악하기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휘력 확장 텍스트 읽고 내용 파악하기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휘력 확장 텍스트 읽고 내용 파악하기

4.2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으며, 구체적 자료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실험군(9명)과 대조군(8명)에게 한국 엑셀리 지능검사와 기초학력검사 읽기와 쓰기 검사를 이용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능검사 결과 70이상인 실험군 9명을 개별로 나누어 한글 읽기 및 쓰기 능력 향상프로그램을 주 1회 40분씩 총 16회기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후 실험군, 대조군에게 기초학력검사 읽기와 쓰기 검사를 이용하여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실험군 9명, 대조군 8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표 3. 실제 학습치료 프로그램의 계획안 예시

	3회기
학습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절과 글자의 대응 관계 알기 단어를 구성하는 글자를 각각의 음절로 나누기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음 + 모음 읽고 결합할 수 있다. 주어진 단어를 각각의 음소로 분리할 수 있다. 주어진 음소를 합하여 단어를 만들 수 있다.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제를 확인하면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한다. 활동지 자료 제시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음 + 모음 결합 발음 규칙을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ㄱ + ㅏ = 가 (그아그아 가) - ㄹ + ㅓ = 루 (르우르우 루) 외 1음절 글자를 자음과 모음으로 나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 자석(또는 음소 모형 자료)을 이용하여 '마' 을 만든 후 읽어본다. - '마' 는 '모' 과 'ㅏ' 로 나눌 수 있음을 글자 자석을 이용하여 직접 분리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발음의 변화를 청각적으로 알려준다. (그 외의 글자를 연습한다) - 치료자의 시범에 이어 아동이 직접 글자를 붙여보고, 발음해 본다. (참고 : 필요시 모래 상자를 이용하여 촉각적 도움을 준다.) 단어를 듣고 그 단어에 포함된 음소를 나눌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진 단어가 어떤 음소로 이루어진 것인지 말해본 후 칠판에 써본다. - 퀴즈 형식으로 제시하여 흥미, 집중력을 유지한다. 맞출 경우, 보상 체계를 활용한다. - 반대로 주어진 음소를 모두 합하면 어떤 단어가 될지 맞추어 본 후 종이에 써본다. 주어진 단어를 듣고 해당하는 단어를 찾기 세 개의 단어를 듣고 칠판에 받아 적기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늘 학습 내용을 총정리한 후, 관련된 활동지를 숙제로 제시한다(가정과의 연계) 학습태도 평가(행동계약)

4.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에 따라 SPSS(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실험 전 두 집단의 종속변수에 대한 집단 간 동질성 검증은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으며, 처치 후 사전, 사후 간의 변화 정도의 유의성을 알기위해 Wilcoxon Signed Ranks test를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덜 받는 Cohen[20]의 피험자 내 효과크기 (effect size)를 각 종속변인 별로 구하여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d|은 0.2-0.3은 작은 효과 크기, 0.5는 중간 효과크기, 0.80은 큰 효과크기를 의미한다[25].

III. 연구결과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처치 전 읽기/쓰기 능력에 대한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읽기와 쓰기의 사전 점수로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한 결과($\alpha = .05$, 양측검증),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집단 간 사전 동질성이 확인되었다[표 4].

2. 가설 검증

2.1 가설 1

“읽기/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읽기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표 5]. 실험군은 처치 기 평균 72.89점에서 79.89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z=-2.668, p<.01$), 대조군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z=-.634, p>.01$). 또한 실험군은 $ES(d)=0.6$ 의 중간 크기의 효과를 보였다.

2.2 가설 2

“읽기/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쓰기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표 5]. 실험군은 처치 전 평균 50.22점에서 55.89점으로 쓰기 능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z=-2.670, p<.01$), 대조군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z=-1.190, p>.01$). 또한 실험군은 $ES(d)=-0.5$ 의 중간 크기의 효과 크기를 보였다.

표 4.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

항목	집단(n)	M (SD)	평균 순위	u	z	p
읽기	실험(9)	72.89 (12.40)	9.28	33.500	-.241	.810
	대조(8)	71.25 (13.29)	8.69			
쓰기	실험(9)	50.22 (9.80)	10.67	21.000	-1.450	.147
	대조(8)	44.86 (11.98)	7.13			

표 5. 실험군과 대조군의 읽기와 쓰기 점수 변화 차이 검증

항목	집단 (n)	사전	사후	z	p	d
		M(SD)	M(SD)			
읽기	실험(9)	72.89 (12.40)	79.89 (11.13)	-2.668	.008	.6
	대조(8)	71.25 (13.29)	72.25 (11.87)			
쓰기	실험(9)	50.22 (9.80)	55.89 (11.21)	-2.670	.008	.5
	대조(8)	44.86 (11.98)	46.25 (9.77)			

IV. 논의

2000년대 이르러 한국 사회는 급속한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도시 및 농촌의 저소득층 남성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말 교육부 기준에 의하면,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은 총 46,954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0.7%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초등학교가 74.1%, 중학생이 19.7%, 고등학생이 6.2%로 학년이 낮을수록 인구 비율이 높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26]. 우리나라의 경우 학령인구는 매해 감소하고 있는 반면, 다문화 출생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은 건강한 미래 사회를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특히 다문화 아동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한글 학습과 관련된 어려움과 그로 인한 학습부진의 문제이다. 아동들의 이와 같은 한글 학습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한글 학습치료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아동의 한글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학습능력의 향상을 높여주기 위해 한글 읽기/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그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읽기/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읽기 능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표 4]. 이는 다문화 아동들의 한글 읽기 능력의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다문화 가정이 아닌 한국인 부모를 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박현정[23]과 이종숙, 조희정[2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 한다. 김동일, 이대식, 신종호[28]에 의하면,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자신이 속한 학년보다 1년 이상,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자신이 속한 학년보다 1.5년 이상의 읽기 성취의 부진을 보이는 경우 읽기 부진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경우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평균 71~72점으로 하위 10%에 속하는 아동들로 구성되어 있어, 읽기 성취의 부진을 보이는 아동들이다. 이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른 과목을 배우기 위해 읽기 능력을 원활하게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더 큰 학습 결손이 초

래된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학습 치료적 개입은 빠를 수록 일반 아동과의 학습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박현정[23]은 읽기 학습 부진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군에는 발음 중심법을 근간으로 한 상향식 조기개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대조군에는 개입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단어 읽기, 읽기 유창성 및 읽기 이해력 모두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의 수행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더욱 커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김동일, 정광조[29]은 읽기학습 부진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군에는 상향식 직접교수 한글 읽기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대조군에는 담임교사의 개별지도가 적용되었다. 그 결과,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읽기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진되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읽기 학습 부진 아동은 정규교육이나 일상적인 보충교육만으로는 읽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학습 치료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읽기/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쓰기 능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표 4]. 이는 본 프로그램이 다문화 아동들의 쓰기 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음을 의미하며, 다문화 가정이 아닌 한국인 부모를 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송은혜[2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홍영숙[30]은 외국인 출신 어머니가 한국에 오래 거주한 경우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문제가 없으나 체계적인 문장 이해력과 작문 교육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녀의 한글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미숙[31]은 다문화 아동들은 독해와 어휘력, 쓰기, 작문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이나 내용의 이해를 어려워하며, 언어에 담긴 의미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언어 능력의 저하는 아동기 이후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도움이 절실하다. 이수진[18], 전형길, 김승연, 노정은[19] 등은 다문화 아동을 위한 한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연구 모형만을 제시하고 있고 실제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

험 연구를 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글 읽기/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중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읽기/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치료 프로그램은 읽기 능력에 대한 효과 크기 $ES(d)=0.6$, 쓰기 능력에 대한 효과 크기 $ES(d)=0.5$ 로 측정되어 한글 읽기/쓰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한글 능력을 향상시키는 근거 기반 중대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의의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 아동의 적용에 가장 어려운 부분인 한글 학습과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한글 읽기/쓰기 부진 아동을 위한 효과성이 검증된 학습치료 프로그램들을 다문화 아동에게 적절하게 수정·보완하여 구성함으로써 정규교육이나 보충교육만으로 개선이 어려운 다문화 아동의 읽기/쓰기 부진 향상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방과 후 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교실 등 다문화 아동들을 정기적으로 돌보고 있는 기관에서 이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심리정서 증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은 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기에 비모수 검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 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일반화를 위해 모수검증이 가능하도록 대상자의 수를 늘려 반복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양적 통계 분석만으로 사전-사후 효과성을 측정하였으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철저히 분석하기 위해서 추후 연구에서는 각 사례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누어 사전/사후 검증만으로 효과성을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추후 연구를 통해 효과의 지속여부를 확인한다면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문헌

- [1]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ko/5/2/index.board?bmode=read&aSeq=310456
- [2] 정은희, “농촌 지역 국제 결혼 가정 아동이 언어 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제12권, 제3호, pp.33-52, 2007.
- [3] 안원석, *다문화 가정 자녀의 표현 실패 분석*, 한국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4] 김선정, 강진숙,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휘력 고찰”, 이중언어학, 제40권, pp.31-55, 2009.
- [5] 김종철, “다문화 가정 자녀의 행동특성 분석을 통한 교수전략 개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5호, pp.277-283, 2009.
- [6] 김지애, “초등학교 입학 전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학습도구어 선정 및 교육”, 이중언어학, 제44권, pp.129-155, 2010.
- [7]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_1001300350&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
- [8] 이재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실태 연구: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08.
- [9] H. S. Scarborough and J. D. Parker, *Matthew effects in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Development of reading, IQ, and psychosocial problems from grade 2 to grade 8*. Annals of Dyslexia, Vol.53, pp.47-71, 2003.
- [10] 구효진, 박경란, 최진선,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와 일반가정 유아의 언어 및 정서·사회성 발달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제44권, 제3호, pp.355-374, 2009.
- [11] 양심영, 박수경, 김미숙,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특성 및 사회적 자본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6호, pp.270-282, 2013.
- [12] 전병운, 고진복, “메타분석을 이용한 특수교육 요구 아동의 음운중심 읽기지도와 의미중심 읽기지도 연구 비교”, 특수아동교육연구, 제99권, 제4호, pp.151-169, 2007.
- [13] 김정오, 김재갑, “한글 단어재인에 있어서 글자 처리와 낱자의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제4권, 제1호, pp.36-51, 1992.
- [14] 이문정, “한글의 문자 특성에 적합한 유아 읽기, 쓰기 교육”,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1권, 제1호, pp.169-192, 2004.
- [15] 송종용, 원호택, “한글 독해 장애 아동의 작업기억, 단기기억, 읽기속도, 통사지식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7권, 제2호, pp.105-121, 1998.
- [16] 양민화, “읽기장애 아동의 효과적인 교수방법연구-다섯가지 교수영역을 중심으로”, 교육논총, 제27권, 제1호, pp.141-159, 2008.
- [17] T. R. Blair, W. H. Rupley, and W. D. Nichols, *The effective teacher of reading: Considering the "what" and "how" of instruction*, The Reading Teacher, Vol.60, pp.432-439, 2007.
- [18] 이수진,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읽기·쓰기 통합 교육 방안*,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19] 전형길, 김승연, 노정은, “의성어, 의태어를 활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교육 방안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1.
- [20] 원진숙, “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 한국초등국어교육, 제40호, 제6호, pp.157-188, 2009.
- [21] 광금주, 박혜원, 김청택, *한국웍슬러 아동지능검사 지침서*,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2001.
- [22] 박경숙, 김계옥, 송영준, 정동영, 정인숙, *국립특수교육원 기초학력검사 읽기/쓰기 검사요강*, 서울: 국립특수교육원, 2005.
- [23] 박현정, *읽기학습부진 위험군 아동의 조기선별 및 조기개입의 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24] 송은희, *유아의 한글쓰기 학습에서 음운중심 쓰기와 통글자 쓰기 지도에 대한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25] J. Cohen,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second e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8.
- [26] <http://kess.kedi.re.kr/index>
- [27] 이종숙, 조희정, “읽기부진아동을 위한 읽기 게임 프로그램과 직접 교수 프로그램의 효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25권, 제1호, pp.77-99, 2012.
- [28] 김동일, 이대식, 신중호, *학습장애아동의 이해와 교육*, 서울: 학지사, 2010.
- [29] 김동일, 정광조, “직접교수 한글읽기프로그램이 읽기학습부진 학생의 읽기능력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제21권, 제3호, pp.149-169, 2005.
- [30] 홍영숙, *다문화가정이 봉착하는 자녀교육 문제와 시사점*, 광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31] 한미숙,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호남신학대 기독교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저자 소개

최 은 실(Eun-Sil Choi)

정희원



- 1998년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문학사)
- 2001년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문학석사)
- 2010년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심리학박사)
- 현재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아동심리치료, 발달정신병리